

2023년 3월 19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자) 사순 제 4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3 월]



복음화 지향 : 학대의 피해자들

교회 구성원들에게 받은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 전례에서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입당송에 나오는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라는 성경 말씀에 그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쁨은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며 주님 수난의 길에 기꺼이 함께하려는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하여 사순 시기에 요구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더욱 새롭게 합시다.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6,1-7.3Lc.6-7.10-13L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다.>

화답송 시편 23(22),1-3.3Lc.4-5.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8-14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41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영성체송 요한 9,11.38 참조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영성체 후 묵상

오늘 제2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빛을 따라 사는 삶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과 의로움과 진실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천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눈먼 사람이 먼저 육신의 빛을 얻은 뒤 점점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 가듯이,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과 이루는 깊은 친교 속에서 어둠을 벗어나 빛을 따라 살아가도록 애써야겠습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허규 베네딕토 신부 ♣

눈먼 사람 vs 바리사이

질병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였고, 병의 정도가 심할수록 죄가 크다고 여겼습니다. 그럼 오늘 복음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런 궁금증과 함께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게 해 주십니다. 요한 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표징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기적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기적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징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관심을 모읍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표징 곧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애써 부인합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는지 묻고 본인에게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과 함께 눈을 뜨게 된 사람과 바리사이들을 대조적으로 보여 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는 표징을 체험하고 자신을 낮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 갑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일어난 모든 일에 완고하게 처신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찾지만, 바리사이들은 눈먼 사람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실상 하느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눈이 먼 사람은 바리사이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 9,5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n 9,5



“심고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요한 9,7



| 사순 제 4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 엘 그레코 작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요한 9, 15).

Blank lines for writing a personal reflection or prayer.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사순시기 사랑의 나눔 봉투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순시기 동안 참회와 속죄, 극기와 희생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나눔 봉투 봉헌금'을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전합니다.

- 모금기간 : 2월 22일(수) ~ 4월 8일(토)
- 봉헌 : 4월 9일(주님 부활 대축일) 교무금함
- 문의 : 허준 안토니오 (성금 전달대상 제안 등)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미사 30분 전) 봉헌 순번

(19일) 마태오반 → (26일) 사목회

2023년 부활 판공성사 순번(권고)

(19일) 요한반 → (26일) 전신자

※ 성사 후 판공성사표를 고해소 안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문의 : 주정자 루치아

신앙캠프 안내(자비의 성모성지 방문)

신앙캠프에 참여해 주신 교우분들과 캠프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 미화 20만 달러 지원

한국 천주교 공식 해외원조기구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 기금 미화 2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의 긴급구호 기금은 튀르키예 카리타스와 시리아 카리타스를 통해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대피소 제공, 식량 및 급수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 특별 모금 캠페인 페이지 <https://www.caritas.or.kr/business/turkiye/>
- 특별모금계좌 : 우리은행 064-106713-13-432 * 예금주 : (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프란치스코 교황,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양국 향해 "종교 장소 존중" 호소 (전문: <https://tinyurl.com/f6cvzrhb>)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3월 15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알현 말미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을 "슬퍼하는 이들의 어머니이신 평화의 모후"께 의탁하시고, "전쟁 중인 양국이 종교 예식 장소를 존중할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교황님은 특히 '키이우에 위치한 동방정교회 페체르스크 라브라(Lavra, 동굴 수도원)의 수녀들'을 상기하시고, "기도생활에 전념하는 남녀 수도자들은 교파를 막론하고 하느님 백성을 위한 지원군입니다."라 말씀하시면서 종교나 교파를 막론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도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 <https://www.churchinneed.or.kr/prayer-campaign/peace-for-ukraine/>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10년 (2013년 3월 13일 즉위)

교황님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만남과 순방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았던 시간의 "긴장" 속에서 지냈다고 하십니다. 수천 번의 알현, 수백 번의 교구 및 본당 방문, 전 세계 구석구석을 누빈 40여 차례의 사도 순방 가운데 교황님은 마음속에 한 가지 뚜렷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셨습니다.

2014년 9월 28일 전 세계 노인들을 만나셨던 교황님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제인지라는 물음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노인들을 만난 일"이라 답하시면서, "노인들은 지혜롭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도 노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재임기간 중 괴로운 여러 번의 순간들은 모두 전쟁의 공포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위 10주년이라는 중요한 기념일을 맞아 세상에 바라는 선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황님은 주저 없이 '평화'라고 답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황님은 교회와 세상, 세상을 다스리는 이들과 인류를 위한 '교황의 세 가지 꿈'에 해당하는 세 단어를 '형제애', '눈물', '미소'를 꼽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10주년 기념 미사 강론 링크> <https://www.cbck.or.kr/Notice/20230102?gb=K1200>



| 사순 제 4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택배로 시키기 전에 근처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확인해보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S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종이컵 2개 기준)
 → 0.29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SCK)

cpbc 사순특강 제 3 강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인생 여정에서의 죄악과 구원 | 방종우 야고보 신부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30 강]
 난공불락 예리코가 무너지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여호수아 2 부 | 6-8 장

천주교대전교구
 소공동체의 교회와 시노달리타스 1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미사 참례자수

3월 5일	성인 53 아이 24	3월 12일	성인 48 아이 16
-------	-------------	--------	-------------

□ 우리들의 정성 (3월 11일(토)~17일(금))

구민식	권요순	김요한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명진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교무금 \$485 (12 가정) / 봉헌금 \$260 / 사순시기 사랑의 나눔 모금액 \$10 (누계 \$4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3월 19일, 사순 제 4 주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3월 26일, 사순 제 5 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 예물 봉헌: (19일) 마르코반 → (26일) 마태오반 → (4월 2일) 요한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19일) 마르코반 → (26일) 마태오반 → (4월 2일) 요한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매월 첫째주 식사): (19일, 간식) 마르코반 → (4월 2일, 식사) 마태오반
- ♡ 김요셉 요셉(19일, 어린이)과 정소영 요세피나(19일, 요한반) 자매님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희생자, 피해자와 유가족, 실종자들과 피해 복구인원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 바랍니다.
-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사성가 안내(3월 26일, 링크 클릭) ♫
 (입당) 121 [한 많은 슬픔에](#) (예물) 220 [생활한 제물](#) (영성체) 197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 122 [구원의 십자가](#)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